

보도자료

ifcz 인천경제자유구역
Incheon Free Economic Zone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7.17(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미디어문화과
담당	과장 김은호, 관광MICE팀장 명창준, 담당 이은정(032-453-7873)

29일 핫 플레이스 왕산마리나로 피서 가볼까·용유바다축제 개최

‘요트&하이볼’ 축제 열려…정상급 가수 출연·하이볼 클럽에 해양 콘텐츠도 준비

-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핫 플레이스에서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바다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9일 영종도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‘2023 용유바다축제’를 연다고 17일 밝혔다.
- 인천경제청과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주최·주관하고 인천 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‘요트 & 하이볼’이다. 여름, 젊음, 낭만, 바다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요트승선 체험과 해양 스포츠 전시장, 물총놀이, 해양 사진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눈길을 끈다.
- 먼저, 메인 무대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바다, 나태주, 리듬파워, 키썸, 영지, 드림노트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맞는다. 보조 무대인 ‘하이볼 클럽(Club)’에서는 각테일쇼, 버스킹 공연, 하이볼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. 이밖에 지역 예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축제 기간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.

○ 특히 풍성한 축제를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특산물 및 음식 부스와 아트마켓, 푸드트럭, 각종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며 교통혼잡 대비와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왕산마리나~운서역 광장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30분 간격으로 다닌다.

○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"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음과 낭만을 만끽하고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"며 "이번 용유바다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"고 밝혔다.